

윤석열정부는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하라!

오염수 방류 무엇이 문제일까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에는 강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염수를 물로 희석해서 버리면 농도가 낮아질 뿐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9월 11일 종료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1차 해양 투기로 버려진 오염수는 7천 800톤으로 전체 134만 톤의 오염수 중 0.5%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바다에는 이미 1조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버려진 것이고, 일부 바닷물에서는 리터당 10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되면서 방사성 오염수 투기에 따른 바다의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다에 버리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대형 탱크에 담거나, 콘크리트에 섞어 고체 형태로 육지에 장기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돈이 가장 적게 든다는 이유로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은 일본 정부가 보는데, 그로 인한 피해는 태평양의 모든 생명체와 이웃 나라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정부도 오염수 관련 예산을 7천억이나 배정하였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의 예산을 아끼는 대신 우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형국입니다.

추석이 지나면 2차 해양 투기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막을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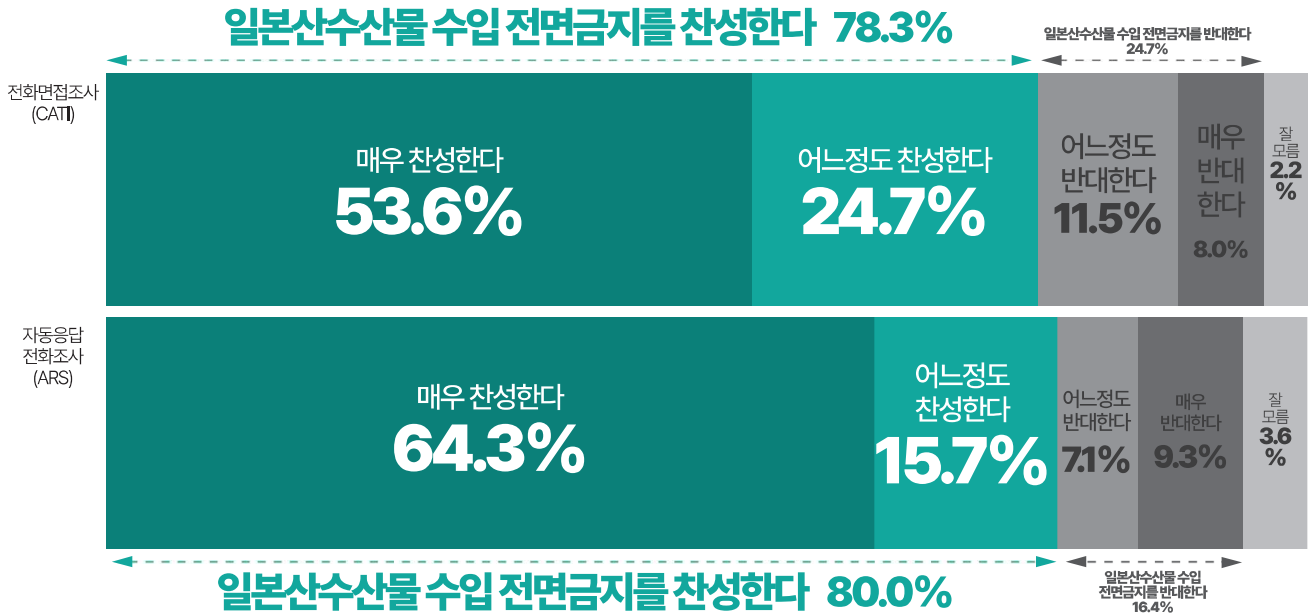
막을 수 있습니다. 오염수 해양 투기는 국제법상 '다른 나라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을 의무'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당장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해야 합니다.

일본 방사성오염수 고도해도
해양투기 저지 0000



<https://nuclearfreeocean.org>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추석명절 보내세요!



그래프 출처 | 여론조사넷

일본산 수산물은 안전한가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2022년 한해에만도 일본산 전체 식품 중 11.5%에서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금지하고 있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 수산물에서의 세슘 검출률이 5.83%로 수입 허용 지역의 0.83%보다 약 7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12년이 지났지만, 방사성 물질의 오염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우리 식탁의 안전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책임을 물어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저농도의 방사성 오염수가 장기간 버려지기 때문에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당장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를 통해 방사성 오염수 투기를 중단시키고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일본 방사성오염수 고도해도 해양투기 저지 000x



<https://nuclearfreeocean.org>